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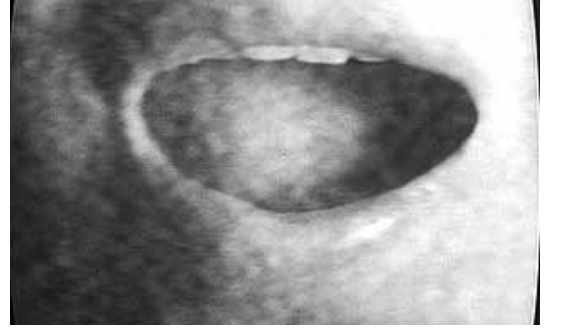


故 차학경

‘나’ ‘자’ ‘고’ ‘교’ 등 한국어 모음이 해상도가 낮은 비디오 모니터 화면을 가로질러 나타난다. 사람의 입에 써 그것들을 발음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정확한 발음이나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지지직’ 거리는 소리와 물소리만 흘러나온다. 볼 수는 있어도 발성할 수는 없는 작가의 심리상태가 반영된 이 작품은 비운의 천재 작가로 불리는 개념미술작가 고(故) 차학경(1951~1982)의 ‘입에서 입으로’.



‘차학경 레퍼런스’를 기획한 김지하씨.



차학경 작 ‘입에서 입으로’.

천재작가 故 차학경 광주 기획전 (29일까지 동명동 수하갤러리)

# 영상·글·번역·사진 등 많은 장르 소화 ‘다원예술가’

차학경의 대표 작품과 그 배경을 살필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동명동 수하갤러리에서 열리는 기획전 ‘차학경 레퍼런스’.  
차학경은 미국 뉴욕에서 피습당해 서른 한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10년이라는 짧은 예술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자전적 소설 ‘딕테’를 비롯해 완성도 높은 작품들은 지금도 미국, 유럽 등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차학경은 백남준을 제외하면 미국 휘트니 미술관에서 특별전이 열린 유일한 한국 작가로, 지난 2011년 김달진 미술연구소에서 ‘재조명이 가장 시급한 현대미술작가’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딕테는 미국 각 대학에서 여성학 및 아시안-아메리칸 문화 수업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UC버클리는 차학경 아카이브가 마련돼 있다.  
이번 전시는 김지하(여·3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 실험영화아카이빙 프로젝트 총괄 기획이 기획했다. ‘차학경 예술론’의 공동저자인 김씨는 국내에서 차학경을 연구하는 몇 안

서른한살 생 마감 불구 자전 소설 ‘딕테’ 인기 휘트니 미술관 전시 등 화제 김지하 “차학경 사진 만들 것”  
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해외에서는 백남준에 견주어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차학경 관련으로는 씬지스페이스(2003)와 아트선재(2000)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대표작품인 ‘입에서 입으로’ ‘치환’ ‘비디오 오브’ ‘비밀스런 유희’ 등 영상 작품과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또 이수진, 미영, 황선숙, 오경숙, 수미 김, 젠 슈윙 등 6명의 예술가가 차학경을 주제로 만든 작품과 그가 UC버클리에 공부할 당시 스승이었던 오구

스트 교수가 소장해 온 차학경 자료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김씨가 차학경에 주목하게 된 것은 10년 전. 당시 이화여대에서 열렸던 ‘세계 여성학회’ 관련 자료를 연구하면서부터다. 당시 다류와 실험영화를 전공하고 있던 그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차학경과의 공통점에 주목하게 됐다.  
“당시 제가 하려고 했던 주제가 돌아가신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다른 할머니들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학경이 ‘기억’이라는 소재를 작품에서 많이 다뤘은 것을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됐죠. 연구를 할수록 매료되는 작가였어요.”  
한국전쟁기간 중 부산에서 태어난 차학경은 196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이후 그는 한국과 미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차학경은 그런 불안감과 함께 소수자, 여성, 혼종성, 탈식민주의 이론 등을 다루면서 젊은 나이에도 미국에서 페미니즘 미술과 포스트모던 미술의 선구자로 이름을 떨쳤다.

“천재” ‘비운’ 등 수식어는 피상적임이다. 그는 차학경을 ‘다원예술가’라고 생각해요. 그는 영상, 번역, 글, 사진, 필름 등 많은 장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현재도 그렇게 다방면에서 완성도를 낼 수 있는 작가는 없습니다. 그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그걸 완성도 높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였어요.”  
차학경 작품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역사인식’이다. 그는 시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유관순, 잔 다르크 등 여성과 4·19 혁명,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미국 이민 후 대학생이 되어 1980년에 모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5·18에 대한 기억은 ‘딕테’에도 나와 있다.  
“차학경 사진”을 만들 계획이라는 김씨는 “작품과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차학경을 알고 싶다’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를 알아줬으면 한다”며 “백남준만큼 진숙한 작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848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은유로 빛어낸 엇갈린 운명의 사랑 이야기

광일문학상 수상 이은유씨 첫 소설집 ‘손’ 출간

당신이 마주잡고 싶은 손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광주일보 신춘문예(1997) 출신이자 광일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은유 시인이 첫 소설집 ‘손’(문학들)을 펴냈다.  
작품은 은유로 빛어낸 엇갈린 운명의 사랑과 삶의 변두리를 떠도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빛어지는 단절과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다.  
한 남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여성과 그 여성을 몰래 짝사랑하는 수기치료사의 이야기를 다룬 ‘손’, 실직한 뒤 고립된 삶을 사는 ‘사흘의 노인’,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실직한 주인공의 이야기 ‘그림자의 초



상’, 경마장을 드나들다 마장내 자살한 사내를 형상화한 ‘천국에는 무지개가 없다’ 등은 모두 사회적 약자이거나 주변인들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소수자인 인물들의 삶을 사건보다 관찰자의 시각을 통해 촘촘하게 그려낸다. 약자를 주변화하고 잉여로 내모는 사회에서 고통을 감지하고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표제작 ‘손’에 소통과 회복의 가능성이 상징적으로 집약되는 건 이 때문이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K.에듀댄스컴퍼니, 체험·해설 결들인 이색 발레 프로그램

### ‘미운오리 발레리나 만들기’ 공연

18~21일 광주교육대학

광주에서 체험과 해설이 결들여진 이색 발레 프로그램인 ‘에듀 발레’(Edu-Ballet) 공연이 펼쳐진다.  
K.에듀댄스컴퍼니(예술감독 정희자·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18~21일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에서 에듀 발레 ‘미운 오리오리 발레리나 만들기’를 선보인 다.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한국예술위원회, 광주교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교육전문가들로부터 ‘한국 최초의 체험형 발레공연’으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예술교육전문가인 정희자 교수가 직접



기획·제작하고 안무한 에듀 발레는 발레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가미하고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보여 주는 발레를 넘어 관객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발레 하이라이트,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오리’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창작발레, 관객들과 함께하는 발레체험시간 등으로 펼쳐진다. 전석 1만5000원(학생 1만원). 문의 062-520-423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청년문화 기획인력 취·창업 활성화

내년부터 관련분야 일자리 플랫폼 구축

광주문화재단이 내년부터 청년 문화기획 인력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지역의 청년 문화 일꾼을 일자리로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청년 문화기획 인력 취·창업 플랫폼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연구는 낙후된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키는 일을 추진하는 청년 문화기획자 육성 및 취·창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일자리와 문화기획 전문인력 미스매칭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다.  
특히 광주지역의 각 대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력

양성 및 인문학강좌, 문화예술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교육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자리 플랫폼의 역할이 기대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남구청 후원을 받아 ‘문화예술 거점기획 및 운영전문가 양성’, ‘문화동네 기획인력 양성’ 등 2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펼쳤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광주시 및 각급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의, 2015년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공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7층 참조은 피부과  
입점완료  
11월 22일(토) 개원예정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 통증의학과  
3층 신한은행  
2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역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찰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구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5천 투지까지 좋음 14억, 건물은 5층과 2층 2동 있음.
-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물 741평 대출 15억 전세 9억 월 430 교환가능 24억 5천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매도 13억
- 장성군 삼계면 주산지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매도 천만원
- 북동 모텔 대지 508㎡(154) 건평 825㎡ 28실 대출 6억5천 매도 9억4천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240) 건물 100㎡(30) 별장, 펜션, 민박집 적합 교환도 가능 3500만원

투자 매도 교환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진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쌍촌역 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평 493㎡(149)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씩 수익 노후 안정적인 생활에 적합 5억2천
- 진월동 호반 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운천역에서 2분거리 주택 대지 170㎡(52) 건평 97㎡(29)1억3천
- 함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입촌동 575㎡(174) 매도 1억8천

임대

- 쌍촌동 기도 생활주택 전시장 자리 234㎡(71) PC방, 오락실, 생맥주 타운 등 다용도 보증금 4천에 월 200이내 타협해서 조정할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장

NAVER **단비플라워** 농협(박배성) 302-0316-649511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상가건물 임대 150평**

농성동 상록회관 근처  
현, 약품도매상 성업중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150평)

대형주차장 완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

062)367-1254  
062)367-125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